

성령 강림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PENTECOST SUNDAY

주후 2022년 6월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83 장 “빈 들에 마른 풀같아” (통일 172)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35 번 성령 강림(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3:13-22	이윤선 집사
찬 양 Anthem	“오직 성령이”	찬양대
설 교 Sermon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196 장 “성령의 은사를” (통일 17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했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좇아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릇된 시선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하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221-2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개역개정 **출3:14**)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 (NIV **Exodus 3:1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5 (주일)	6/6 (월)	6/7 (화)	6/8 (수)	6/9 (목)	6/10 (금)	6/11 (토)
	신9	신10	신11	신12	신13,14	신15	신16
본문	시92,93	시94	시95,96	시97,98	시99-101	시102	시103
	사37	사38	사39	사40	사41	사42	사43
	계7	계8	계9	계10	계11	계12	계1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6/8수 오후7:30)	“어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룻2:1-13)
토요 새벽기도회(6/11토 오전6:30)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시84:1-12)

지난 주일(5/29)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4)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 3:1-14)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산 지도 벌써 사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처음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을 때만 해도, 모세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애굽을 돌아가서, 예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또 다시 누리리라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점점 시간이 지나,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는 젊었을 때처럼 더 이상 원대한 꿈이나 대단한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메마르다’ 또는 ‘폐허가 되다’는 뜻의 ‘호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1)첫째, ‘일상에서의 부르심’이고, 2)둘째, ‘하나님과 친밀함으로의 부르심’이며, 3)셋째,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의 일상은 (마치) 메마른 광야(호렘)처럼 여겨져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산(호렘)’이 되며, 또한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벰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11:29)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후회할 없는 부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